

강진 도시재생 관리 마을조합이 맡는다

11일 창립총회... 주민 조합원 모집 도시재생지역 주민 주도 유지·관리 거점시설 활용 일자리·수익 창출 기대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유지·관리할 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된다. 3일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관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이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도

시재생지역을 주민 주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토교통부의 설립 인가를 받는다. 오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앞두고 조합준비위원회는 조합에 참여할 주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강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6월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동삼)를 구성, 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7월에는 협동조합 발기인을 구성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설한 '도시재생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했다. 또 전문가 컨설팅과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를 검토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 거점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 생활인프라를 유지하는 등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병기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어려운 과정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왔다"며 "마을관리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합원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광양시 '상습 침수' 옥곡·신금지구 정비한다

2021년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선정 국비 등 493억원 투입 4년간 정비

광양시가 상습 침수지역인 옥곡·신금지구 정비사업을 벌인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옥곡·신금지구 선정돼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의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던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해 행안부의 재해예방사업, 환경부의 우수관거 정비사업,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 보다 체계적 정비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공동사업이다. 옥곡·신금지구는 흐르는 지방하천인 정도천의 폭이 좁아 비가 많이 내리면 자주 범람했다. 지난 2011년에는 집중호우로 정도천이 범람하면서 옥곡 지역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양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46억원 등 493억원을 투입해 4년간 정비 사업을



광양시는 최근 옥곡면사무소에서 행안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별일 계획이다. 지방하천 4.33km 구간을 정비하고 고지배수로 600m, 우수관로 3.75km를 교체해 침수 피해를 막기로 했다. 교량 5곳을 새로 건설하고, 배수펌프장 2곳도 정비한다. 광양시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서면·발표심사, 현장평가 등의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옥곡·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의 주택과 상가, 농경지 침수로 인한 생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해소돼 시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을 보여줘'... 뉴미디어 활용 관광 홍보

군, 크리에이터 관광 영상 대전 개최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 콘텐츠 주목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크리에이터 관광 영상 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관광 영상 대전은 '보성을 보여줘'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상황 속 관광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관광 보성'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마케팅이다. 특히, 참가 자격을 일정한 팔로워 수를 확보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로 제한해 콘텐츠 파급 효과를 높이며, 영상 장르와 공모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크리에이터들의 무한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여행 시대가 열림에 따라 관광영상 대전을 통해 간접적인 보성 관광, 여행정보 공유, 관광보성 이미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 실질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보성의 명소를 알리고, 보성의 대표 관광지를 감성 영상으로 재탄생시켜 코로나사태가 종식되면 팔로워들을 보성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이번 크리에이터 관광영상 대전



과 함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관광영상 대전을 추진해 지속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기자 노트 공익사업도 소통 후에 했더라면...



이진택 제2사회부 부국장

행정의 공익적 목표는 공익의 추구이다. 반면 개인과 기업의 경영 목표는 이윤 추구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행정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행정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례군이 최근 새로 지은 교회의 주차장 포장 사업에 군비를 투입해 진행하자 이를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 '공익인가', '사익인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34면 규모의 교회 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군비 4000여만원이 들어갔다. 자동차 급증으로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지자체마다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구례군도 지금까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는 새차 구입비용과 맞먹는다. 교회 주차장 지원 사업은 주차공간 1면 조성 비용으로 34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지로 따지면 34배 넘는 장사이다. 지원 조건은 주차장 개방이었다. 해당 교회는 일요일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에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구례군도 군

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즉 공익이 크다고 보고 의회와 협의해 지난달 18일 포장 공사를 시행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8월 초 유례 없는 큰 수해로 구례지역은 1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구례시가지가 잠기면서 군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구례를 찾아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마침 이 시점에 교회 주차장 공사가 시행됐다는 점이다. 구례군은 "이미 결정된 공사이고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할 수도 없어 계획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군민들은 공사의 시의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해 복구가 급한데 예산을 교회 주차장 포장에 쓰는 데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때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구례군의 교회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도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업임에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좋은 일을 하면서 좀더 널리 알리고 시행했다면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ں 점이다. 이번 일을 통해 균형 추진에 있어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면 한다. /lit@kwangju.co.kr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기여 공무원 표창

화순농기센터 여은주·박효진 팀장

외면받던 작두콩 꼬투리를 식품원료로 등재하는데 기여한 화순군 공무원들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화순군은 화순농업기술센터 여은주·박효진 농촌지도사가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과 박효진 역량개발팀장은 지난 2010년부터 작두콩을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상품화에 성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이에 힘입어 화순군은 전국 작두콩 재배면적의 19.2%를 차지하며 전국 1위 주산지가 됐다. 그러나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작두콩 꼬투리가 식품원료에서 제외되면서 재배 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다. 여은주·박효진 팀장은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득한 끝에 1년7개월 만에 작두콩 꼬투리의 식품원료 제한적 사용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여은주·박효진 팀장은 "동료 공무원들의 협력



구충군 화순군수가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원 모범사례 표창을 받은 화순농업기술센터 여은주·박효진 팀장을 격려했다. <화순군 제공>

이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충군 화순군수는 "작두콩 작물 육성 과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모범적인 우수사례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상상인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 상상 (앤솔로지)
- 봄이 재밌을 땀다 김유석
-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게요 최지하
- 새, 블랙박스 양수덕
-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 메타자본세카이어 신현 강대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장영주 시집